

## 고등교육법 관련 공청회 8일 2시 학술관 3세미나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석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학부제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시행에 관한 공청회'가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 주최로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학술문화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조의연(영문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양문흠(철학)교수의 주제 발표와 박부권(교육학)교수, 박상관(경주캠퍼스)교수, 이영환(경제통상학)교수, 오대현(국문학 박사과정 2학기)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구준서(전자공4) 30대 총학생회장 당선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김익기 교수회장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은 학부제보다도 더 큰 변화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교육의 담당자인 교수와 수혜자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획과·학적과 팀제로 전환 효율성·전문성 향상 기대

지난달 31일 인사개편부터 기획과와 학적과가 팀제로 전환 각 각 기획팀과 학적팀으로 운영된다. 인력 정원의 효율적 배치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팀제는 작년 1박주년 기념 사업본부의 기금모금팀과 사업계획팀 등 총 2개팀에 실시했고, 올해는 기획과와 학적과로 확대 실시 하는 것이다.

## 서총련 연석회의 다시 무산 참여 통한 진지한 논의 필요

지난 30일 학원관 소강당에서는 본교를 비롯한 16개대의 총학생회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열렸으나 파관 수 이상 대의원의 불참에 따라 무산됐다.

오미숙(97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10기 서울지역총학생회장단 의장 권한대행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연석회의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져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배근호(식자4) 사무국장은 "별써 3차례나 회의가 무산 됐지만, 학생대중과 함께 하는 학생운동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열렸던 연석회의 역시 파관수 이상 대의원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된 이번 회의 역시 무산 필요로써 대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한 대의원은 밝혔다.

# 총학 선거 구준서·이미성 당선

## 학생들 무관심 여전 ...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터"

지난 3일 막을 내린 서울캠 제 30대 총학생회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4)조가 총유권자 1만2천88명 중 6천7백1명이 투표에 참가해 55.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5천5백93표를 얻어 83.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각지역별 투표상황을 보면(찬성:반대) △1지역(불교대, 예술대)=4백4:56 △2지역(문과대, 이과대)=7백13:1백57 △3지역(사과대, 법과대)=2백94:1백20 △4지역(경상대)=5백43:1백22 △5지역(생자대)=2백89:65 △6지역(사범대)=6백77:80 △7지역(공대)=1천4백40:2백65 △8.9지역(야간강좌)=1천2백33:2백31 등이다.

지난 11일 선거당시 당선자의 당선불인정으로 다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이로써 마무리가 됐으며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5개단과대 학생회장선거도 학생회장선출이 끝나 새로운 학생회의 형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주용(철4) 중선위원장은 "학생회를 건설해왔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구준서·이미성조는 "앞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제30대 총학생회 구준서·이미성 당선자가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경주캠 대중평 결과

### 공론화 시급하다

### 반성 통한 자구책 마련 필요

경주캠의 대중평가인정제(이하 대중평) 결과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캠에 이어 경주캠에서도 지난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한국대학교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실시방문 평가를 받은 이후, 지난달 초에 교육부가 각 대학별로 인정여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대중평을 준비했던 자체평가 위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평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 기획홍보과 계장은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 받은 시기는 지난 달 24일 이었으며, 재단감사 일정과 인사이드가 겹쳐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년동안 대중평을 준비했던 한 자재평가 위원은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므로, 편의주의식의 발상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교는 25개 종합대학과 11개 교육대학과 함께

대중평을 받았으며, 기존 예상 점수였던 4백 5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교는 6개영역(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시설·재정경영) 중 1백점 만점에 90점이 넘는 경우 부문별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데에는 6개 영역 중 해당영역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평가를 받은 37개 각 대학별로 세부적인 결과까지 통보된 상황에서 본교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자구책 마련의 노력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번 대중평 결과와 관련해 기획홍보과의 한 관계자는 "공개가 가능한 내용과 공개가 도움이 안되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천년 이후로 고교 졸업생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지는 냉엄한 경쟁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번 대중평 결과를 토대로 본교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의 자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대중평을 준비하면서 보인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해경 기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따른 학부제 논의

### 급격개혁 추진...주체간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학부제 확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2월 25일 전국 각 대학에 통보됨에 따라 본교 역시 교육개혁 종합관리팀(단장=박부권·교육학)을 꾸리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28조 2항에서는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약학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학과별로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부제 전면 실시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교는 △모집단위를 단과대학 또는 학부로 한다

△교수의 신분보장을 위해 소속단위를 학과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커 진동을 겪고 있다. 지난 1. 2일 양일간 치러진 단과대별 설명회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는 현 학부제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는 등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본과대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부제의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대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근 2년간 실시한 학부제의 구체적인 평가작업을 촉구하고, 이번 교육개혁을 반발하고 나섰다. 이과대는 '학과장 발령'이라는 전제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설명회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같은 난항은 비단 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대는 99학년도부터 학부제를 모든 학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나 총학생회가 집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는 부작용을 우려해 대비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또다시 전면적인 교육제도 개정 작업의 추진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는 8일 서울캠 교수회 주최로 개최되는 '학부제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 시행에 관한 공청회' 이후에야 본교 교육개혁의 대략적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 SRC 지원사업 2차 본심사 통과

### 오는 15일 마지막 현장평가...선정시 80억 지원

98년도 한국과학재단의 신규 우수연구센터(SRC) 지원사업에 본교 강태원(물리반도체과학부)교수가 신청한 '극한물질밴드갭 제어과학연구센터'가 1차 예비심사에 이어 2차 본심사에서도 통과됨으로써 마지막 3차 현장방문 평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 지원사업이 공모된 이래 총 33개 대학 70개 센터가 지원하여 1차심사에서 17개 소가 선정되었으며, 2차 심사에서 본교를 포함하여 서울대, 고

려대, 포항공대 등 6개 센터로 압축되었다.

오는 15일 현장방문평가로 치러지는 마지막 3차심사에서 3개 소가 최종 선정되는데 본교가 선정될 경우 9년동안 총 8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본교 교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공계분야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타분야에까지 지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송석구(철학)총장은

"극한물질밴드갭제어과학 분야는 21C 본교의 학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중 하나로서 그동안 MBE등 고가기자재의 확충, 우수한 연구인력의 충원, Matching fund의 지원 등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온 분야"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기간 내에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1999년 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신축중인 정보매체센터에 이미 충분한 독립공간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자일언

대저 배움에 두가지 길이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이와 친하고, 바른 도리를 알아 진리에 편안해 하면 비록 곤궁하여도 사익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법구경·교학품 47절

## 보리수

### 무재칠시(無財七施)

이 봉 춘(불교문화대 불교학부)

불교의 이상적 인간형으로서 보살이 쌓아야 할 덕목은 무수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보시(布施)이다. 보시란 남을 위한 베풀 또는 나눔을 말한다. 그 내용은 흔히 재물로 베풀고(財施), 바른 길을 알게워주고(法施),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주는(無施) 세가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같은 보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주는 자로서 우월감을 갖거나 베풀무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 되지 않으며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조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량 베풀고 나눌 뿐이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을 위해 무엇으로도 베풀고 나누는 것은 정말 요긴한 일이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상적 인간형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마음 써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만큼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없어서 주지 못함을 방패삼아 스스로 면책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말 물질로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살일 같은 열려 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가지, 이른바 무재칠시(無財七施)가 그것이다. 그 일곱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身施)은 얼마든지 있으며, 2)그 사람의 입맛이 되어 이해하고 마음 써주는 일(心施)도 가능하다. 3)부드러운 얼굴 빛으로 대하고(和顏施), 4)따뜻하고 자애로운 눈길로 남을 격려 하는 일(慈顏施)도 훌륭한 보시이다. 5)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말하며(愛語施), 6)미 맞는 사람과 우산을 함께 받는 것과 같은 작은 나눔(房舍施), 또는 7)버스타 지하철에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일(扶危施)도 좋은 보시가 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청정한 마음으로 나선다면 보시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가진 것이 없어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시(財施)이든,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의 무재칠시이든, 베풀고 나눔의 행위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노력이다. 그런 일은 비단 시대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강조되어야 할 일만은 아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힘써 쌓아가야 할 덕목인 것이다.

## 본사 박상관 신임국장 부임

본사 편집국장에 박상관(행정86졸)씨가 임명됐다.

신임 박국장은 지난 86년 본교에 들어와 연구교류처 연구부 학술계장으로 재직중 본사로 부임했다.



## 동대신문 기획 광고

# "숨은 양심을 찾습니다"

자료 검색을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을 찾는 이들에게 손쉽게 자리를 내주실 분들 계신가요?  
"저는 채팅 하고 있었습니니다"  
"먼저 쓰시지요"

## 도서관에서 채팅하지 마라 말이야!



# 5개 단과대 학생회 건설

## 학생회 공백 메워내야...학생들도 '주인의식' 필요

지난 3월 30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이과대, 법과대 등 학생회장 미선출 단과대의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과대** 단독 출마한 김기준(물리3)군이 전체 유권자 7백10명중 4백47명이 참여해 6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4백33표를 얻어 96.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법과대** 전체 유권자 3백31명중 2백39명이 참여해 72.2%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김후보 조성환·조정훈조가 1백59표를 얻어 75표를 획득한 을후보 이상승·김민태조를 물리치고 66.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경상대** 단독 출마한 한우종

(회계3), 이과관(경상학부3)조가 전체 유권자 1천2백50명중 6백80명이 참여해 54.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5백83표를 얻어 85.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공과대** 전체 유권자 3천4명중 1천7백45명이 참여해 56.9%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을후보 유홍식

(산공3)·이홍범(기계공3)조가 1천2백66표를 얻어 4백17표를 얻은 김후보 신영용(컴공3)군을 물리치고 72.6%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예술대** 단독 출마한 임동익(연극영상3)군이 전체 유권자 4백8명중 2백76명이 참여해 67.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2백61표를 얻어 94.6%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 10일 한·일 세미나 개최 일본의 6대 개혁 주제로

일본학 연구소 (소장=공로명 석좌교수)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한·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석구(철학)총장의 개회사를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6대 개혁과 6대개혁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 파견·교류교수 신청접수 15일까지 학술교류부에서

연구교류처(처장=박거대·수학) 학술교류부는 98학년도 2학기 자비에 의한 해외파견교수와 서울권, 경주권 교류교수, 99학년도 1학기 교비에 의한 해외파견교수 선발을 위한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 졸업생 취업률 67.8% 경제불황 탓 예년보다 저조

취업과(과장=김병수)는 98학년도 2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7.8%라고 밝혔다.

총 2천3백69명의 졸업생중 1천6백5명이 취업했으며 이중 대학원 진학생과 군입대생을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1천2백18명으로 순수취업률은 61.5%이다. 이는 작년 취업률 81.3%(순수취업률 78.1%)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취업과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 탓으로 예년에 비해 취업률이 많이 낮아졌다"며 "졸업생들 및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취업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수회, 학부제등 학내문제논의 회칙 의거 총장후보 선출키로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는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외위원회를 갖고 △학부제 문제점 △신임교수 임용 절차 △총장후보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원칙없는 학부편성 및 행정의 파행성 부분의 문제와 획일적인 36학점의 낮은 전공학점제에 의해 교육의 질 저하 등이 학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총장이 임용하는 현재의 교원신사 제도는 중앙집권식 폐쇄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학과에 대한 새로운 학칙은 인사체제를 학과에 소속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 새내기 자치문화제 개최 학생들 자발적 참여 기대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이종열·사외4)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새내기 자치문화제 동성동성'을 개최한다. 다시 희망을 품고 98년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21세기 시대정신을 찾아 Power People을 만난다'라는 모티브 아래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새내기 자치문화제는 해오름식을 대신하는 것으로 13일 경상대 계단에서 고사를 시작으로 한다.

이전의 해오름식이 학생회장 옹립 및 집행부 인준등으로 1일 동안 치러진데 반해 이번 행사는 올동태와 노래패의 공연, 영화상영 및 강연회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시화회 탐방과 북한동포돕기 차관패, 새터 사진전, 퍼포먼스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 여학생부처 집담회개최 재테크 및 SOHO사업 관련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는 오늘(6일)과 내일(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계산관에서 '대학생을 위한 재테크'와 '무자본창업 SOHO 사업설계'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빙 무료 집담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에게 현실에 맞는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갖게 해 현실의 경제환경을 이해하고, 실천적 행동양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이번 집담회의 강사는 신영 재무컨설팅 대표 박연수씨와 교육방송 컴퓨터 정보광장 진행자 곽동수씨이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부처 전미영 상담원은 "건강한 경제관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제13대 총여건설 무산 투표율 저조총여 항방 금주 안에 드러날 듯

제13대 총여건설이 50%에 못 미치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무산됐다. 지난달 27일과 30, 31일 에 걸쳐 3일동안 진행된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투표에서 총 유권자 4천5백55명 중 2천1백80명만이 참여해 47.9%의 투표율을 그쳐 무산된 것이다.

총여 건설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둘째, 다른 학생회조직과 달리 하부단위가 없어 10명 남짓한 선거운동원이 고작 있었던 총여가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각 지역별 투표율에서 확연히 드러나 이부대의 경우 여학생이 밀집한 단과대임에도 불

### 여학생부처 집담회개최 재테크 및 SOHO사업 관련

여학생부처(처장=임동희·사학)는 오늘(6일)과 내일(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계산관에서 '대학생을 위한 재테크'와 '무자본창업 SOHO 사업설계'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빙 무료 집담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에게 현실에 맞는 기본적인 경제지식을 갖게 해 현실의 경제환경을 이해하고, 실천적 행동양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이번 집담회의 강사는 신영 재무컨설팅 대표 박연수씨와 교육방송 컴퓨터 정보광장 진행자 곽동수씨이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부처 전미영 상담원은 "건강한 경제관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분열'하는 학생회

## 사과대, 일부 대학과 연대기구 결성

### '파로' 아닌 '하나' 되는 학생운동 패아

지난해 한총련 출범식과정에서의 이석서 사망사건 등으로 한총련을 비롯한 학생운동세력이 급격한 퇴조와 함께 각 정파들간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화여대, 숭실대, 전남대, 전북대 총학생회 등의 학생회는 한총련을 탈퇴, 새로운 학생회 연대기구를 결성해 복합 동포들, 대학내 교육문제, 인권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학생운동권의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숭실대에서 열린 자리에서 참석한 본교의 이종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한총련은 96, 97년을 거치면서 이미 대중성을 잃었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의외로 돌린채 반성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고 이제는 학생운동의 대표제가 될 수 없다"며 새 연대기구 건설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한총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얘기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협의체에서는 교육, 인권등의 각 부문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또한 적지않다. 사과대의 한 학생은 "조직의 문제는 조직내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주장하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학생운동권 전체를 공멸로 이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총련의 비민주성이나 관료성, 그리고 학생대중과의 괴리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총련을 탈퇴하는 정파나 조직중에서 한총련 혁신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그는 자칫 운동이라는 것이 캠페인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학생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의 학생운동은 분열과 반복이 아닌 공통성의 공유를 통한 단결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틀속에서 사회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학생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파로 또 같이"가 아닌 '하나'속에서 거두는' 학생운동이 될 때 변화, 발전될 수 있고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과대학생회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주저해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겠다는 총학생당선자의 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철주 기자

## 희전무대

### 극비회의?!

O...지난 2일 문과대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 박부권 교육개혁총합관리팀 단장을 비롯한 문과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교육개혁의 쟁점 사항을 취재하고자 모단과대 설명회 참석후 찾아간 기자들을 강력히(?)거부! 이유인즉 소란(?)이 일어난 것일 예상, 그런모습을 보일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에 본 희전무대자 왈 "말실화임이 능사는 아닐진데..."

### 코끼리의 비애

O...학생회 선거로 떠들석 하던 지난주, 어느새 불상연에 불에 타고 남은 코끼리의 유해(?)가 등장했다.

이는 지난주 화요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학군단앞에 있던 코끼리에 불이 붙은 것.

대책위원회에서는 누군가의 방화로 인한 화재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코끼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본 희전무대자 왈 "코끼리 아저씨에게 과거는 못할 망정, 불은 왜 붙이는 거야!"

### 아랫물

O...아, 빨리 좀 찾아봐!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4명의 꼬마 아이들이 본교 우체국 앞에 있는 폐전선지 수거함에 매달려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버려진 건전지속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들을 찾고 있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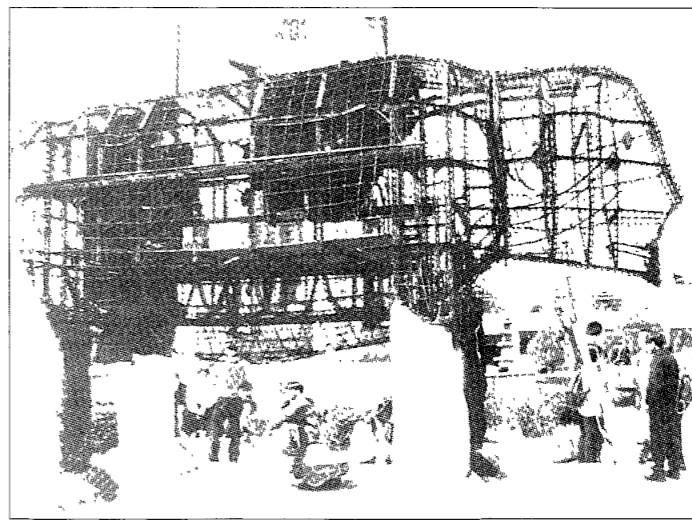
"IMF인데 아껴 써야지요"라며 계속해서 건전지를 찾는 이들이 보고, 본 희전무대자 왈 "똥물이 흐러도 아랫물은 맑다!"

### 방송위의 책

O...문제:중앙도서관 옆에 새로 생긴 도서관은?

정답:다량관 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도서관의 자리는 줄었고, 급기야 일부 학생들은 시끄러운 식당에서까지 책을 펴 놓고 공부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학구열을 학교에서는 언제쯤 알아주려는지, 이에 한 학생 왈 "지금 짓는 건물 도서관 아니었나요?" 구당"



불탄 코끼리 ... 지난달 31일 새벽 0시 40분 학군단 건물앞에 있던 제동행렬용 코끼리가 화재로 인해 매달려 있었다. 유해로 세번째인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 초청강연회

문과대학 만해 석좌교수 초청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 사 명 : 만해석좌교수 초청대 선생 초청강연회
2. 제 목 : 민족문화의 나아갈 길
3. 일시 및 장소 : 98. 4. 8(수) 15:00 ~ 17:00

90주년기념 문화관 세미나실

문 과 대 학 장

### 외국어특강 안내

구 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를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Beginner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오전	07:50-08:50 Angelika Gatos (강의실 A)	Nicholas Garrison (강의실 B)	Paul Leslie (L309)	Paul Sather (L310)	Joseph Sitroweller (Lab C)	Leon Kaye (Lab B)
오후	17:00-18:00 Troy Body (강의실 A)	Irene Hanssen (강의실 B)	Brian McGrath (L309)	Eric Prochaska 원.수.부.공 (L310) 화.(M307)	Paul Treadway (Lab C)	Bruce Dawson 원.수.부.공 (Lab B) 화.(L310)
수 강 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 간	98. 4. 27 ~ 6. 9(6주)					
접 수 처	외국어교육원 사무실(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98. 4. 20일부터 신청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260-3470~1)

###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실시

최근 기업의 채용전형기준을 보면 능력보다는 개인의 품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인적성검사가 기존의 채용시험을 대체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이 인적성검사를 채용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인적성검사는 취업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검사종류 : 매칭 직무적성검사
2. 검사일시 및 장소
  - 1) 1회 : 4월 14일(화) 오후 3시(동국관 L 501)
  - 2) 2회 : 4월 14일(화) 오후 7시(동국관 L 501)
  - 3) 3회 : 4월 15일(수) 오후 2시(동국관 L 401)
3. 비 용 : 2,000원(단 1, 2, 3학년은 3,000원) 검사해설 및 상담은 무료
4. 접수일자 : 4월 3일(금) ~ 4월 13일(월)
5. 접 수
  - 1) 3, 4학년 과대표를 통하여 졸업준비위원회로 일괄 접수해 주십시오.
  - 2) 개별접수는 졸업준비위원회로 해주십시오.

\* 검사에 관한 문의로는 학생생활상담센터(구내전화 3506)나 졸업준비위원회(구내전화 3613)로 해주십시오.

\* 검사에 앞서 취업인적성검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 신청서 검사일과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 바랍니다.

학생생활상담센터, 졸업준비위원회

### 4·19기념 제29회 동국인 등산대회

4·19 혁명 38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제29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많은 문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일 시 : 1998. 4. 17(금), 09:00 ~ 17:00
2. 장 소 : 북한산(4·19탑)→대동문→북한산장→위문→하부제→도선사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
4. 행사내용 : 4·19기념식, 등산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식
5. 구 성
  - 가.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대학원, 동문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이상 참가
6. 시 상
  - 가. 최우수상, 우수상, 자연보호상, 장기자랑(참가자) 나. 학과상
  - 1) 상금:금상(1백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 2) 참가신청과 심사(참가를 우선)는 별도로 한다.
  - 3) 다수의 학과가 심사대상일 경우는 대회 운영상 대상과 시상상을 조정함.
7. 접수기간 : 98. 4. 6(월) ~ 4. 16(목)
8. 접 수 처 : 동국대학교 학생과(260-3047~8), 산악부(다량관 앞)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모자)이 제공됩니다.

학 생 처 장

실업대란과 정책방향 시사논단

기업부도·정리해고로 실업자 1백만 시대  
사실규명 통한 실효성있는 정책 개발 기대

지금 온 나라가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속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에 비해 실제 실업률은 그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그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IMF와의 두 차례의 조정을 거친 결과 98년도의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잡혀 있어 그에 따른 예상실업률은 5% 정도로 잡을 때 약 1백만명 정도가 실업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잠재실업자를 더하고 정리해고를 가능케하는 법안마저 통과됨에 따라 실제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자가 1백만을 넘어설 경우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실업률의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생각만 해도 우울하기 짝이 없는 일임에 틀림 없다. 물론 새정부에게 지금의 실업사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이미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직업훈련, 직업안정기능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대책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실규명을 통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일례로 전체 실업자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사오십만명의 실직자가 건설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와 훈련수당까지 지급하는 직업훈련 그리고 각종 취업정보만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설경기부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고급리와 자금의 이동성 저하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지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민



송 일 호  
경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창출이 가장 큰 분야는 실업률 업종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SOC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 부문 역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산업과 연결되는 신공항공로도로의 건설이나 경부고속전철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 등도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정부는 출범 직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가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표방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호소에 따라 자진해서 금모

사설

교육개혁과 입시제도

최근 본고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요대학에서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대학 교육개혁의 핵심이 학부제로 이행하기 위한 내부 구조조정에 있었다면, 이번의 개혁은 입시제도를 대폭 바꾸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우수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각 대학이 저마다 입시제도의 특성화·차별화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내부정비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입시제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개혁과 입시제도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95년도에 처음 교육개혁을 시작할 때의 명분은 다름 아닌 각대학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수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대세를 갖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각대학의 개혁이 결국은 우수학생 유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들 입시제도 정비에 대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듯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강대가 학생들의 전공선택자료를 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새

입시제도를 발표하여 반향을 일으켰고, 이어서 서울대가 우수학생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요강을 발표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서울대마저도 엄지불구하고 우수 신입생 모으기에 나선 것을 볼 때 대학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세칭 일류대가 아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어떨까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본교가 일찍이 대학교육개혁을 선도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변화를 낚보다 먼저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예상은 현실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대응은 현실점에서 오히려 타교에 비해 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호소력은 신입생 모집요강을 학사 일정상 담당 확정해야만 하는데, 그 앞에서 신입생 모집단위와 교수의 소속단위의 재편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인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교육개혁을 마무리 짓자.

도서관 수용능력 한계  
효율적 공간활용으로 좌석부족 해결해야

아침 8시, 도서관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 열람실의 좌석이 부족하고 서고 공간도 부족하다. 이제 더 이상 기존 공간의 재배치 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도서관 열람과의 한 관계지는 "학기초가 되면 도서관이 북미진 하지만 올해같이 만원인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절대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고민중이다"라고 말한다. 중앙도서관은 62년에 세워졌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이제 늘어나는 이용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교 중앙 도서관은 그 규모면에서 다른 학교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졸업생들과 휴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특별열람증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발급된 특별열람증은 모두 6백82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중앙도서관의 총 좌석수가 1천9백11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엄청난 것이다. 도서관의 특별열람증발급 담당자는 "안 그래도 좌석이 부족하는데 졸업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다"며 "앞으로 졸업연도 제한 등의 방법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전한다. 경주캠퍼스 도서관도 좌석이 부족하다는 마찬가지이다. 워낙 좌석이 부족한 데다 도서관 건물내에 타부서가 자리잡고 있어 외부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주 도서관 열람과 이철교 과장은 "타대학과의 지역적 고립으로 인해 외부인의 일반열람실이나 도서열람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다"며 "하지만 인력 문제로 인해 외부인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석수 (석)	이용자수 (명)	1인당 좌석수
동국대(서울)	1,954	14,672	0.13
동국대(경주)	1,600	8,215	0.19
고려대	7,485	26,300	0.28
서강대	2,315	8,681	0.27
중앙대	2,773	13,936	0.20
경희대	3,415	15,618	0.22

타대학 도서관 비교(97년 3월 현재)



도서관 좌석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필요할 것이다. 몇 년전 '좌석을 두배로 사용하자'며 학생회측에서 중앙 도서관 4층 열람실 각 좌석에 등그린 메모꽂이를 설치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적어 그 시간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다시 그 메모꽂이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도 어느 시간

대중평 결과를 발전의 계기로

본교 경주캠퍼스를 비롯한 전국 36개 대학이 지난 해 받았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인정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 경주캠퍼스보다 한해 앞서 실시된 서울캠퍼스 경우는 주지하다시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본교의 위상은 물론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한 층 드높인 바 있다. 지난 달 2일 평가인정 결과를 통보 받은 경주캠퍼스의 경우 애초 대중평을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합격점보다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오는 만족스런 수준을 보여 주었으나, 이런 결과는 대중평을 함께 받았던 타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만족스런 성과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특성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6개 영역 중에서 우수영역으로 선정된 분야가 전무했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일년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는 자부도 필요하다. 그러나

갑수록 치열해지는 대학간의 경쟁을 현실로 직시한다면, 이 수준에서 대중평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꿈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중평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그 대비책을 공론화하는 일이다. 대학 3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대중평 결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경주캠퍼스의 장점과 단점도 파악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논의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살아남기 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그런 공론화의 노력들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통해 학교발전을 더욱 공고화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대중평의 결과에 대한 자기반성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충실히 보충하는 등등의 노력들이 하나씩 실행될 때에야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비로소 살아날 것이다. 현재 대중평 결과에 대한 발전적 자기비판 작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

담 화 문

- 일부 해종행위자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즈음하여 -

제방에서 수행과 중단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혁중단(총무원)이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여가 지났습니다. 이 3년여 동안 중단은 중도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중단의 대사회적인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단은 승리의 화합과 중단의 안정이 현재 한국불교 발전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요,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왔습니다. 중단의 안정적인 기틀 위에서만이 흔들림없는 개혁이 성취되며 나아가 21세기 한국불교 발전도 보장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중단은 중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단단한 안정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 대학 승격을 인가받았으며 중단 제반 교육개혁사업 추진과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하여 포교활성화와 대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단 관련 국가법령을 중단의 의도대로 개정하여 중단 운영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지평을 넓혔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제도화하였고 공익안정표지제 운동을 벌여 헌 정부의 자연공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14곳에 달하는 성보박물관 건립에도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전례없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단이 이 모든 성과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력을 해주셨던 사부대중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러나 중도들의 이러한 여망과는 달리 중단개혁 이후 이러한 중단의 발전상을 방해하고 흥 집내려는 해종분자들이 최근까지 각종 소송을 벌였던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중단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중단과 중도들에게 도전했던 그들의 해종행위는 대법원의 지난 2월 24일 최종 기각 판결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해종행위자들 (진경(황환수), 성일(박희수), 종진(황종민), 운성(김원석), 원정(장한덕), 탁수(정순식) 이상 6명)는 1995년 1월 24일과 4월 21일 각각 총무원장 일주(송현성) 산출무효 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일주(송현성) 직무정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94년 3월 29일부터 있었던 일련의 중단 개혁과정에서의 개혁회의법과 이후의 종원이 무효이며 이법에 근거해 선출된 현 총무원장 산출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사부대중이 개혁과정에서 보인 열의와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에는 그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그 기구를 개혁하고 단체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할 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질서규범으로서 그 자치에 맡겨지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서 지난 94년에 있었던 중한개정과 개혁회의법 제정은 불교 교우의 '실공공사'에서 유래한 중단의 전통화된 의견결합방식인 전국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전제에 따라 법률성이 부여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개혁회의법에 의해 제정된 총무원장선거법 역시 유효하며,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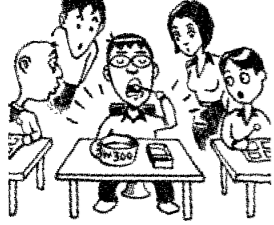
리위원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했다는 점이나, 선거법상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총무원장에 피선했다는 점 등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대로 현 총무원장은 제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선정인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1994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중단개혁의 큰 흐름 즉 중한개정, 개혁회의법, 개혁중단 및 총무원장 선출이 모두 적법성과 정통성 및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인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특히 중단개혁 당시 긴급한 사태하에서 불교교우의 산중공사에서 유래한 1994년 4월 10일자 전국 승려대회 결의가 초중원적인 구속력이 있고 법통성을 계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결의에 따른 중단개혁은 적법타당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소모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일이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단과 중도들에게 도전하는 어떠한 해종분자도 중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전국의 원로·중진승님과 사부대중들의 중단을 수호하고 불조해평을 지키려는 끊임없는 애 중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원은 앞으로도 개혁중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해종분자들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의 불온한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종원·종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시도가 애초부터 발생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단 앞에 놓여 있는 각종 현안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21세기 중단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속의 한국불교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佛紀 2542年 3月 20日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宋 月 珠

동약로

한 끼 식사=5백원+₩300=O.K!



노란 식권

“국물하나 주세요” 한 학생이 3백원을 내며 식당 아주머니에게 말한다. “3백원은 뭐고, 국물은 또 뭐야?” “글쎄 처음 들어보는데...”

뒤에 서 있던 두 학생은 1천3백원짜리 식권 두장을 사서 그 학생의 뒤에 줄을 선다. 차례가 된 그 학생은 “국물이요”라며 식권을 식권통에다가 넣으며, 반찬과 국물을 배식받은후 주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의자에 앉는다. 그 학생을 보고 뒤에 줄 서있던 학생들은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학생은 가방에서 ‘밥’만 들어 있는 도시락을 꺼내는 것이다. 밥통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밥을 먹다 말고 도시락과 학생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해 한다. 밥통에서 밥만 싸오면 학교에서 반찬과 국물을 먹을 수 있는 3백원짜리 노란색 식권. 91년 3월 식당 직영매장이 처음 들어서면서 생활협동조합이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선물(?)이다. 7년간 운영해오면서 다른 식대는 계속 울랐음에도 이 국물 가격은 계속 3백원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비 인상으로 적자에 대한 부담이 생겨 가격인상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 IMF 시대에 어려운 학생도 많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라며 생협 관계자는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식권이 하루에 15장 정도 나왔는데 경제불황 이후에 그 장수가 많이 늘어나 다양한 판의 경우에는 보통 60~80장이 동국관은 40장정도 나간다고 한다. “처음에는 도시락 싸오는데 귀찮고, 많이 장피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싸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돼서 좋아요”라며 한 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IMF구제금융을 받은 지 어느덧 1백일이 넘었다. 경제여파는 대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저렴한 학생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술집을 찾는 횡수는 줄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오늘날 식사시간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줄. 그 속에서 3백원과 함께 “국물 하나 주세요”라는 말이 들려 온다. 박영실 기자

제주 4·3항쟁 50돌 재조명

잠들지 못하는 4·3의 원혼

무고한 민중대학살 역사적 진상 규명돼야

중산간마을이 붉은 저녁놀이처럼 타올랐다. 우뚝게 백사장에서, 터진목에서, 포선 백사장 등에서 해풍을 가르는 총성이 울렸다. 학교 관사에 성을 쌓고 착잡한 군인들이 끌고온 사람들을 죽장으로 찢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여태껏 악몽에 시달린다. 그 사건은 4·3 민중항쟁이라 일컬어진다. 그것은 남포단만이 주체가 된 극좌모험주의·폭동·반란도 아니며, 수난만도 아닌, 제주민중의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투쟁이었다.

항쟁의 역사는 정통성이 결여된 통치자들이 아무런 노래도 불렀도 끝내는 잠재우지 못하는 자정이었다. 4·3민중항쟁 50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때의 일들을 돌이켜보고자 한다.

4·3항쟁의 전개과정은 해방 공백시기(1945.8~1946), 평화항쟁 시기(1947.1~1948.3), 자주항쟁 시기(1948.4.3~1948.8), 대토벌 정책과 민중대학살 시기(1948~1953)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하였으며, 육지에 대한 섬의 종속성 때문에 제주도내의 봉건적인 모순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화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기 육지에서 일어났던 좌익의 간 의 이념논쟁과 세력 다툼의 영향을 쉽게 받았다. 좌익세력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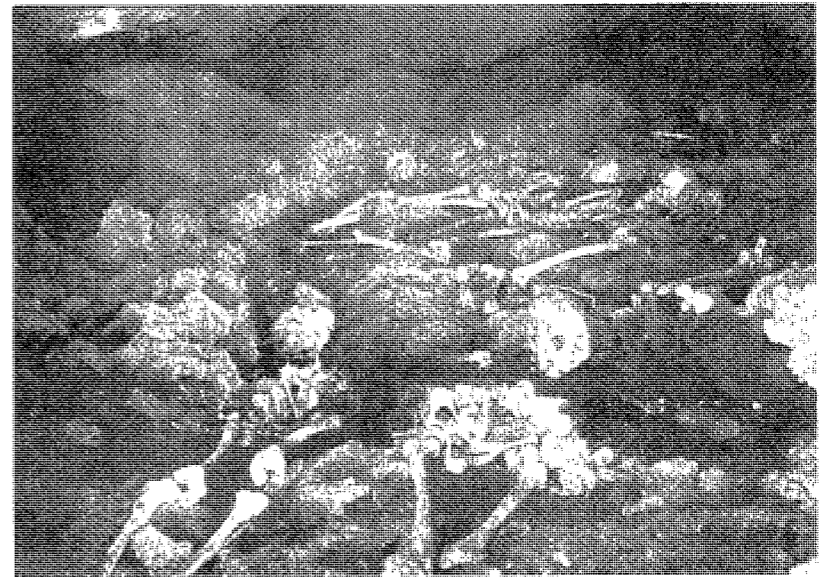
에 알맞은 장소로 제주도를 선택하였고, 그들의 전략은 어느 정도 적중하였다. 도내의 많은 피압박 민중이 그들의 선전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미군정 당국과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좌익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많은 무고한 민중까지도 좌익으로 몰려서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것이다.

1947년 3월 1일, 섬사람들은 불법으로 금지된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민중의 집단행동을 무조건 기피하는 미군정에 의해서 탄압당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시가행진에서 경찰기마에 의해서 6명이 살해되었고, 이에 집단과업과 항의, 규탄의 저항운동이 촉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군정에 의한 단독정부 구성이 추진되던 당시 상황에서, 미군정은 제주의 치안상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좌익인사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했다. 테러활동으로 유명한 서북청년단이 투입되어서, 대량학살, 대량구속, 고문치사 등이 더욱 심하게 자행되었다는 혐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원래 혼란시기는 공산주의의 선전에 가장 알맞은 시기. ‘탄압이행 항쟁’이라는 뼈가 살포되고 각지에서 봉화가 울렸다. 1948년 4월 3일이었다. 흥분한 민중은 10개의 경찰지서를

공격하는 등 과격한 증오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국가권력과 우익 세력에게 절호의 탄압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후, 남과 북에 두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항쟁의 성격은 변화하였다. 항쟁 지도 세력인 남로당 지도부들이 제주를 떠나자, 미군정과 이승만정부는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갖가지 탄압과 회유책을 실시하였다. ‘공비포벌대’는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섬사람들을 체포하고, 산간마을을 소탕시키거나 방화하고 처형하는 등 살육을 자행했다. “18세 이상 40세까지 분리하여 바줄로 포박하고 백사장으로 끌고 가서 죄의 유무와 이유 여부를 따문하고 무참히도 157명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증언이 근대에 들어서 밝혀지며, 당시 피살자가 4만명이다 5만명이다 라는 말이 운위되고 있는 형편이다.

4·3항쟁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포악한 극우세력과 극렬한 극좌세력이 간교한 논리로 저마다의 주의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희생당한 제주도민의 넋을 달래 수는 없다. 지금도 돌굴 속에 당시 희생자의 뼈가 꿩굴고 있다. 그것을 잊지말자. 사회부



1992년 3월말 북제주군 중산간지대 자연동굴인 다랑쉬굴에서 4·3희생자 시신 11구가 44년전 처참하게 몰살당한 모습 그대로 발굴되었다.



4·3 항쟁 당시 붙잡힌 무장대들의 모습.

학생운동 춘추전국시대

조직적 단합·대중적 지지, 한총련이 풀어야 할 과제



학생운동이 춘추전국시대로 치달았다. 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이래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임시의정=순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으로 이어져 오던 학생운동이 분파와 내부모순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총련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30일 순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29개 대학 총학생회는 순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도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을 일삼는 한총련’이라

고 비판하며 한총련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형체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96년 연대항쟁을 비롯해 지난해 제6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잇따른 폭력사건에 대한 한총련의 폭력투쟁과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의 비민주적 결정이 분파와 내부까지 다다르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각 대학마다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민족해방(NL)계열이 범민중민주(PD)계열보다 지배적이긴 하지만 ‘자주대오’가 주류를 이루던 NL계열이 ‘21세기’, ‘사람사랑’, ‘새벽’ 등 여러 비주류 분파로 갈리면서 하나의 중심점을 찾지 못한 것도 학생운동 내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제6기 임시의정 선출과정에 있어서 일부 대의원들이 한총련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도 한총련과 지역총련과의 갈등이 깊어진 이유중 하나이다. 본교 총학생회 배근호(식자) 사무국장은 “한총련 내부 분열에 있어, 본교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 관련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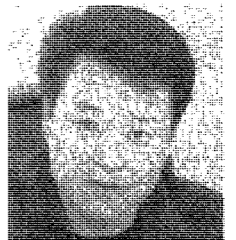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총련을 사수한 얼마되지 않는 학교’임을 강조하며 한총련 사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듯 학생운동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과거 학생운동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대중적 지지와 호응을 얻으며 한국사회의 모순과 투쟁했다. 물론,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탄압공세에 이적단체로 규정돼 대중적 지지와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총련 내부의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학생운동은 조직의 단합 외에도 대중적 지지를 회복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하겠다. 또한 한총련 내에서 변화와 혁신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고 저주·통일이라는 현실적 학생운동의 공통 분모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오는 10일에 있을 제6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는 학생운동의 사활이 걸린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오인택 기자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선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1일 ‘제1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이갑용 전 한총련 의장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세계일보 국제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이갑용·고영주 후보조와 정갑득·장운 후보조와 경합을 벌인 결과 3백81표(대의원 정원 3백99명) 가운데 이갑용·고영주 후보조 1백89표(49.8%), 정갑득·장운 후보조 1백76표(46.2%)를 획득했으나 1표차로 과반수에 미달해 찬반부표를 실시한 결과 2백5표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고영주 공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제2기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한편, 위원장 선거에 앞서 진행된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유덕상(3백6표), 단병호(2백57표), 허영구(2백46표), 김영대(2백37표), 이상춘(2백25표),

이규재(1백88표) 후보 등 6명이 각각 당선됐다. 회계감사에는 이용길, 최종식, 이동진 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2월 제1기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어온 민주노총은 새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 ‘실업문제’와 ‘고용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갑용 위원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제1기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한편, ‘투쟁하는 민주노총’ 및 ‘강력한 지도부’를 선거목표로 삼았다. 이 위원장 당선자는 90년 풀리잇투쟁을 주도하며 비상대책위위원장을 지냈고, 94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및 한총련 의장과 전노대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사회부

가치있는 내일 함께하는 삼양

http://www.samyang.co.kr

“단조로운 구질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직구를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져도, 직구 하나 변화구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력이 강한 사람, 주위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사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양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내는 기업입니다.

직선적이지만 결단력이 빠르고 일처리가 신속한 사람



각주  
가장 기본적인 구질로 무조건 빠르고 변하는 스트라이크존의 네 구질을 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 뼘도 느리지만 남을 못보는 것을 보는 사람



배터 연  
직구를 던지는 동적은 같은 속도가 12~19km 정도 느려 타자의 타이밍을 헛기게 한다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해지는 사람



상커  
직구처럼 보이지만 타자 앞에서 갑자기 가리 떨어 병살타를 유도하므로 구원투수에 좋은 구질이다

문제가 부딪히면 언제나 남과 다른 길을 찾아 해결하는 사람



슬라이더  
흔들림이 강한 약 60m에서 비탈 아래쪽으로 떨어 타자를 맞는 현대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구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금 주위를 놀라게 하는 사람



내로남불  
시속 75~80km 정도에 회전력 전혀 없이 타자의 포수는 물론 타자는 투구에도 공이 어떻게 변형지 모르는 신비의 구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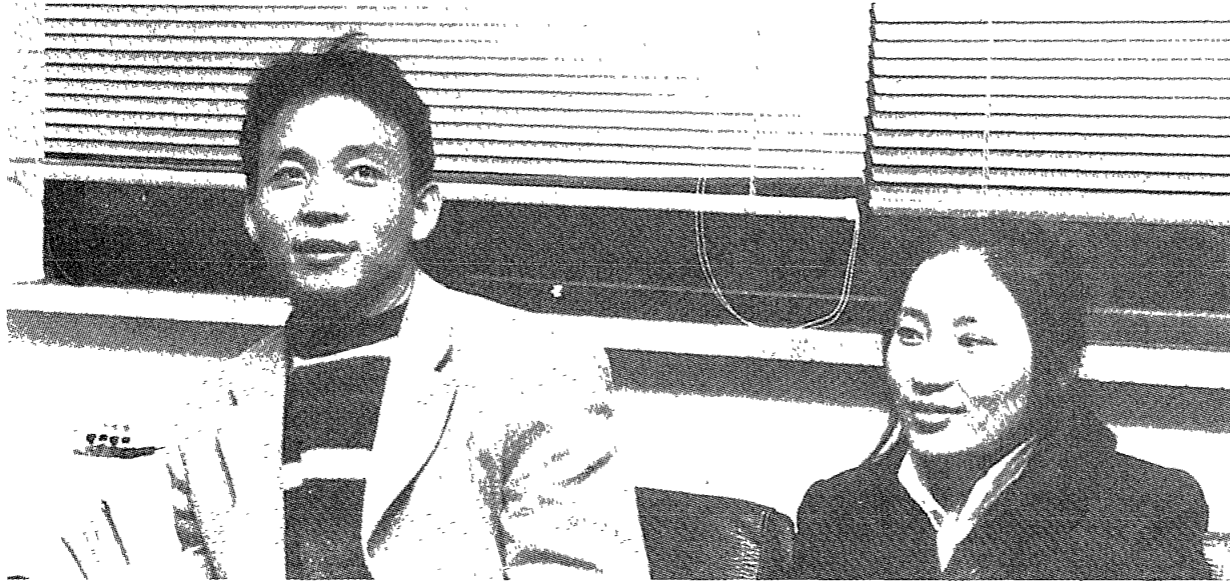
삼양사(化肥, 설탕, 사료, 化肥, 환경, 의약) • 삼양중기 • 삼양제철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학 • 신원제분 • 삼양종합금융 • 삼양에스케이 • 삼양스틸 • 삼양(이)티시스템 • 삼양텔레콤 • SY텍스타일 • SY비니 • 삼양그룹연구소 • 양명회 • 수당합회

98 학생회 건설

지난 3일 막을 내린 제3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구준서(전자공 4)·이미성(국교 4)조가 55.6%의 투표율, 83.5%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근두락집 처버린 학생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98학생회 선거를 평가하고, 어떻게 한 해 동안 동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들어본다.

그들이 말하는 98동국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담아내겠다”



제 30대 총학생회선거에서 당선된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4)조를 만나 당선소감을 들어보았다.

-당선소감은
=당선 사실보다는 30대 총학생회를 학생들 손으로 건설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학생회 건설을 바라는 많은 학생들이 만났는데 그 눈빛들을 잊지않고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충해 나가겠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선거 기간동안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학생들의 냉소적인 태도이다. 작년 선거때와 달리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자신을 위한 준비에 바쁜 것 같다. 조금이라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동안에 총학생회의 부재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지난 학기에 세 개의 중앙기구가 모두 무산되어 내실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3월에는 많은 사업들을 벌였어야 했는데 선거 때문에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들은 대부분 단편적이었고, 일꾼들은 실무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올바른 중앙의 모습으로

동국을 이끌 것이다.
-학생들의 삶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총학생회가 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들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는 곧 1만 2천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요구를 우선 최소단위인 과학회에서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는 단과대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에서 수렴할 것이다.

-현시대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은.
=학생들은 사회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가는 흥겨워지고 있다. 사회의 희망인 학생들, 학생회는 이들에게 개인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선거에서는 학생들이 후보자나 정책 등을 몰라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 선거는 우선 한해동안의 활동을 평가한 후에 과학회와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총학생회가 하나 되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1만 2천의 총학생회가 건설될 수 있다.

-지난 30일에는 이화여대, 전남대, 숭실대 등 29개 대학이 한총련 대체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한총련 내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투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들의 방식이 우리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으로서 항상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더 큰 공명점을 봐주었으면 한다.

-올해 있을 총장 선거에 대한 생각은.
=이번 선거는 승자승 패자패의 이기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여러 사업들을 학내 주체들이 평가한 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학부제 확대)과 관련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내리니까 본교에서도 이에 따라가려고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처치는 배우고 가르치는 주체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학사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수회, 대학원 총학생회와 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국의 주인임을 보여줄 것이다.

박영실 기자

제30대 총학의 약속

△학생들의 삶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총학생회!
다양해진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연석회의로 학부학생회의 어려움을 함께합니다. 각 단위별 소모임과 학회강화로 다양한 저항을 담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학생들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치투쟁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여성, 복지문제에 주력합니다.

△1만 2천 마음의 조각을 모아 하나로 통하는 집속, 총학생회!
대학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겠습니다. 학부제로 모호한 과와 학부의 관계 및 체계 등을 안학화합니다. '수요영화제'를 '수요광장'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문화공간을 창출합니다. 의견수렴하여 민회광장을 보수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어우러짐의 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실천으로 답하는 건강 한 신념의 상징, 총학생회!
올바른 꿈을 잃지 않고 묵묵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아름다움을 만들겠습니다. 97년 1학기에 실시한 새내기 청년강좌를 발전시켜 진보적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담아낼 강좌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대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조국과 민중을 위한 의리를 다하는 정의로운 총학생회!
사회가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실천입니다. 즉 조국과 민중을 위한 삶을 고민하는 것은 바로 1만 2천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시대의 주인인 민중과 함께 연대하여 사회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98 선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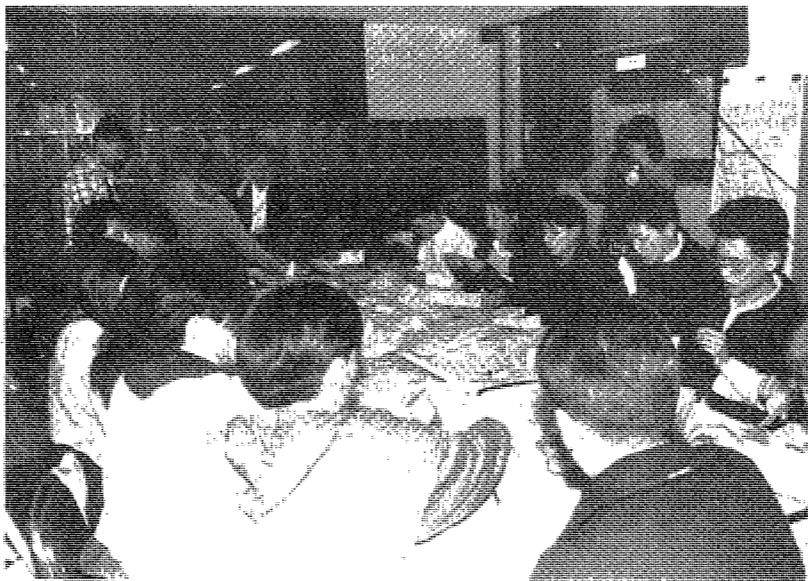
학생손에 의한 학생회 건설이 큰 의의 무관심 여전한 고질병...참여속에서 이뤄지는 선거돼야

“개표를 기본총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가끔 투표하러 오는 학생들중에 기호 1번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3일 막을 내린 9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면서 밝히는 한 당선위원의 소감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렵게 구성됐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명진관에서 수업을 듣는 아간강좌 학생들을 위해 투표소와 투표시간을 늘리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보여 여전히 '선거'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선거진행과정에 있어 발생했던 문제점이다. 학생회의 위상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라도 하듯 유세도중 교수가 뛰어나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과 폭언이 벌어진 상황과 도서관에서의 유세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선거'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이런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회를 부정하려는 모습들이 선거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학생들의 무관심의 정도가 과거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위해 진행되었던 세차례의 유세에는 적게는 2백여명에서부터 많게는 3백여명정도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유세장을 찾은 사람이었다면 쉽게 알



사진은 지난 3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있었던 개표 모습

수 있었겠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유세장이 된 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거운동원들과 몇몇 관심있는 학생들의 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각 투표장소에는 어김없이 선거를 권유하는 운동원들이 여러구호와 박수와 노래를 곁들여 가면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는체 하고 가려는 학생들 또한 있어 학생회선거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천이 아니라 참여조차 하지않는 일부 학생들의 행동은 투표를 권하는 학생들이나 그냥 지나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해 문과대의 한 학생은 "선택에 있어 참여의 불참이 아닌 참여의 전제야야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번 선거를 '학생회 건설'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적지않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표자를 세워내는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철주 기자

학사모형의 개혁

전공자율선택과 대학의 특성화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1. 학사모형 다양화의 자율화의 목적
대학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자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인적자원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학과별 모집제는 학생선발의 단위를 유사전공의 교수들로 구성된 학과에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한번 결정된 학과는 졸업 때까지, 아니 평생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다. 수많은 학생들이 전공과 적성과의 괴리때문에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키면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피로움의 차이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전공자율선택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학사모형 다양화가 부진한 원인
교육부가 대학에게 특정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재정부가 기업체에게 특정한 사업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이다. 교육부는 과거처럼 사전규제를 남발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공자율선택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교수와 학교당국의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특히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로 구분되는 전공선택의 편중화 현상은 교수, 학생, 행정 모두에게 심각한 것이다. 소위 대학에서 '인기학과'라고 하는 것은 전문인을 배출하는 전공이다.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가 직업과의 연계성이라는 점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균형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교수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구문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기학과와 교수는 교육내용과 학점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인기학과와 교수는 한탄하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소규모의 클래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적인 상승을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학사모형 다양화와 자율화의 유형
단일 전공은 하나의 전공을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전공은 단일전공을 두 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연계전공과 복합전공이라는 것도 있다. 연계전공은 여러 개의 전공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옥성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와 같은 프로그램은 영국의 엘리트들을 길러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경영학+엔지니어링, 사학+사회학+문학, 법학+공학 등과 같이 다양한 연계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관장하는 교수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복합전공은 특수한 단위의 주제를 전공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학, 인문학, 중국학 등과 같이 기존의 학과들이 제공할 수 없는 분야를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전공은 다양한 복수의 전공분야가 연합하여 하나의 전공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복합전공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가 살려질 것이다.

4. 학사모형 개혁 방안
① 전공정원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서 특정 전공의 정원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이나 사회의 요청과는 괴리되어 있다.
②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대학들은 이제껏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의 선발이 아니라 우수한 졸업생의 양상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창의적인 인간을 교육해내야 한다.
③ 폐과 위기에 있는 학과의 존속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최소정원제를 실시해 볼 수도 있다. 각 전공별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공자율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학과를 존속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반은 전공에 관계없이 선발하고, 나머지는 단과대학별로 최소한의 정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전공을 사전에 구속할 경우에는 장학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모집한 학생의 평균성적이 대학교 전체로 선발한 학생들의 평균성적을 크게 밑돌 때, 해당 학과는 대학전체의 구성원들에게 그 이유를 해명할 의무가 있다.

④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사고의 성숙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대학원 과정에 적합한 전공이다. 현재 학부교육은 전공기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대학원은 학부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형태로만 존속하고 있다. 오늘날 인기학과라고 불리는 전공이 사실은 전문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비인기학과라고 불리는 전공은 순수 학문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문경영인, 전문가, 전문사서, 전문번역사가 부족한 것은 사회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러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신문방송학보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이, 과학도서관에서 전문사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문헌정보학보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⑤ 교수들의 신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기본단위인 학과는 유사전공을 하는 교수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별개이다. 이 기본단위인 학과를 우수한 교수들로 충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우수한 사립대학들은 학생을 모집하기 전에 저명한 교수를 먼저 확보하여서 학과를 구성한다. 학부학생을 몇 명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교수의 신분보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수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수월성이자, 학생도입능력이 아니다. 물론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연구와 교육능력을 갖춘 교수에게 많은 제자가 모인다. 어떤 교수의 강의가 폐강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학원 수준에 적합한 과목이라면 대학원으로 조정하고,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교수는 연구자로서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교수보다 더욱 우수한 논문을 써내도록 해야 한다.

⑥ 전공자율선택제를 제공하는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점을 일찍 깨닫는 대학일수록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자신을 확대하고 부당한 교육서비스를 강요하는 대학에 우수학생이 몰려갈 이유는 없다. 각 대학은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자율적으로 분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위 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이론적 배경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발행=기획부

책 소개 **바다가 보고싶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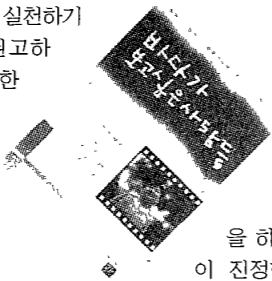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장애인 사진'만 찍어온 사진가 이정룡씨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아 책을 펴냈다. '장애인을 위한 혁명가'라는 거창한 이름이 따라다니곤 하지만 이정룡은 12장의 작은 이야기와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진들을 통해 소박한 꿈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에게는 삶 자체가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벌버둥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스럽게만 보이는 자신들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이정룡씨는 이 글을 통해 마음의 장애인인 정상인과 육체적 장애인인 일반인들과의 만남이 모두가 인간다운

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책의 발행부족은 전국장애인 관련시설 주소록으로 독자로 하여금 몸소 작은 것을 실천하기를 권고하기도 한다.



실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즐거움일 것이다.

달과 꿈, 정가 7천 8백원

중국의 고전에 '동수기문(東水記聞)'이라는 책중 권2에 보면 송나라의 태조를 도와 개국의 공이 큰 조빈(曹彬)에 관한 글이 있다.

시중(時中) 조빈은 인자하고 사람이 많으며 너그러운 평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매우 싫었다. 그가 석주라는 곳에서 지부(知府)로 있을 때 한 벼슬아치가 죄를 지었는데 조빈이 곤장 형으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그 곤장형의 집행을 1년여나 미루다가 집행하였다.

주위사람들이 해를 넘겨서 형을 집행한 까닭을 물은즉 이에 대답하기를 "내가 듣건대 이 사람은 그대 장기를 들 때인지라 만일 이 사람에게 불기를 때리는 형을 집행하면, 새벽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반드시 이 며느리가 불길하다고 생각하여 증오하고 구박할 것이다. 때문에 그 형집행을 늦추어 일년 후에 행하였노

**조빈이 전하는 관용의美 달하나 천강에**

라.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그를 사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자애하고 깊이 문제를 살피었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대문(大門)이라는 글자에 접하나를 덧붙여 견문(犬門)으로 고쳐서 배형을 가볍게 해서 온정을 베풀었, 역모와 반란사건을 후한 자비로 처리하여 별쪽의 화를 면하게 해준 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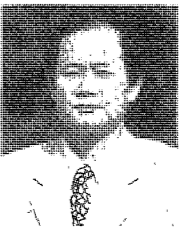
실제로 이러한 관용에 관한 기록보다는 강직한 사례들과 지혜로운 사례들이 고전에는 많이 보이지만 강직과 지혜로운 사례가 보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직하여 황제에게 간하고 상을 받는 일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공이라는 사람의 예이다.

그리고 지혜로워서 여러사람들의 입을 오르

내리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이승이라는 사람의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강직함과 지혜로운 관용의 품위에서는 더 숙연하다. 강직한 사람들에서 칭찬을 얻을 뿐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나 관용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정으로 그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본 관용의 대표적인 일화를 남긴 조빈에 대한 기록 가운데 다음 기록도 매우 흥미로워 여기에 첨가하여 소개한다.

이럴 때 부모가 조빈 앞에 여러 장난감을 놓고서 무엇을 갖는가를 보았는데 왼손에는 무기를 오른손에는 제사용구를 들었다 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장군과는 달리 원정에서도 지도와 책과 의복만은 지니고 다녔다 한다.



손성 법과대학 교수

사진영상의 해 행사안내

1. 사진박물관 건립
2. 한국 사진 역사전  
일시: 98년 11월 중  
장소: 예술의 전당
3. 98 사진영상축전

- 일시: 98. 5. 17~29  
장소: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4. 전국인 사진축제  
일시: 98년 7월 중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5. 정부수립 50주년 '격동의 한국 현대사진'  
일시: 98. 7. 2~ 7. 22

- 장소: 세종문화회관 전시정(전관)
6. 사진의 시각적 환상전  
일시: 98. 9. 28부터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7. 21세기 사진영상 학술회의
  8. 인터넷 사이버 갤러리 운영  
일시: 98. 1. 2~ 12. 31  
장소: 98사진영상의 해 사무처

실종! 사진·영상의 해

경제난 속 실속파 9개 기념사업 진행

민간·정부·기업, 문화토대·국민관심 모아내야

"중국 5만여 사진인들은 98사진영상의 해를 기해 사진영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을 고취시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진축제 한마당을 펼치고자한다"

지난 1월 14일 동송동 문화회관에서 '98사진영상의 해' 선포식이 있었다.

그러나 1월 14일 선포식이 있은 후에도 언론은 사진영상의 해에 대한 이렇다할 사업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았고 기업들의 지원소식 또한 보여주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론의 무성의한 보도로 인해 혹은 개인적 무관심으로 인해 사진영상의 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자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투자기치를 외면하자 언론 및 매체에서 또한 자본에게 외면된 문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써 사진영상의 해는 어느새 사람들 생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불황일 것이다. 사진영상의 해를 기획했을 당시 사진·영상계 뿐만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지원 및 사업진행 의지는 매우 고요해 있었으나 막상 불을 지피자 할 시점이 됐을 때 각 주체들은 개인적 어려움 타개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직접적인 사진·영상계는 경제불황 때문에 경제난에 허덕이게 됐고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97문화유산의 해'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중앙산업 부문에 지원한 19억원의 절반인 10억원 정도의 예산만을 책정했다.

한편 매년 10억원 가량 협찬을 해온 기업들은 앞서 밝혔듯 살길찾기에 급급해

문화계 지원파위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됐다.

결국 조직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잠정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10억원정도인데 이는 사진영상의 해 중심사업인 '사진박물관 건립' 예산비용이 15억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열악한 지원이다.

이에 따라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임응식)는 30여개 준비사업안을 9개 사업으로 줄여야했고 특히 국제 사진페스티벌 같은 국제교류 행사도 교환을 때문이 포기해야 했다. 9개 사업 또한 경제난을 고려해 규모와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해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사진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자의 밤을 개최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7개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와 내용을 조절해서라도 9개 사업만은 잘 치루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로

써 일부에서는 '경제난과 속에서 그래도 사업내용의 실속을 채워 진행해 가는 것 같다'는 관심어린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선보인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진영상의 해에 대한 이후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이를 전적으로 조직위원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현실이다.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개개인 국민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진영상의 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 해의 문화적 성과를 조금씩 비단부터 쌓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이유로 문화의 외면한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진 기자

설명해 다시보기

어두운 현실... 끊임없는 유행어 생성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적어도 반은 하나는 할 수 있다. "아! 벨링하다!"

'벨링하다'라는 말이 '공기가 서늘한 느낌이 들다'라는 본래 의미에 '우습지 않은 우스운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서늘해지다'라는 뜻이 추가돼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개그맨들은 '벨링하다'라는 단어의 밋밋함을 그 의미를 대신하는 다양한 단어로 새롭게 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릴레함메르'(9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든가 '벨런', '스키' 등의 말이 그것이다. 또한 '당담이와 썰렁이', '스노우맨',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이스맨'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벨링하다'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단어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돼 왔다.

보통 유행어라 함은 그 수명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인의 입에서 떠나는 말을 일컫는다. 하지만 유독 이 '벨링하다'

라는 유행어는 '유행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대입수능시험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바뀐 요즘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국어교육과 김해숙 교수는 "보통 '벨링하다'라는 말은 적합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 쓰인다"고 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 말은 이미 유행어라는 특성이 사라진 용어가 됐다고 덧붙이는데, 이는 광복 이후 유행된 말 '~것 같다'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쓰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것 같다"의 유행이 불행한 시대가 야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돼 그 말이 고착화됐듯이 '벨링하다'의 통용화 역시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한다. '벨링하다'라는 말도 다른 유행어와 달리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다. '벨링하다'는 언어가 사회를 반영한다는 원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김미경 기자

문화계 지원파위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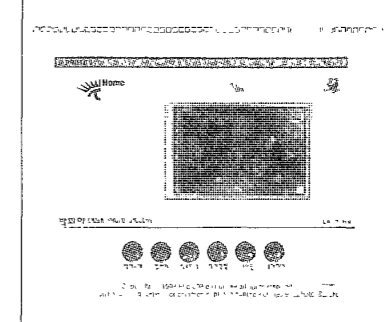
결국 조직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잠정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10억원정도인데 이는 사진영상의 해 중심사업인 '사진박물관 건립' 예산비용이 15억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열악한 지원이다.

이에 따라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임응식)는 30여개 준비사업안을 9개 사업으로 줄여야했고 특히 국제 사진페스티벌 같은 국제교류 행사도 교환을 때문이 포기해야 했다. 9개 사업 또한 경제난을 고려해 규모와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현재 진행 사업에 대해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사진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자의 밤을 개최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7개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와 내용을 조절해서라도 9개 사업만은 잘 치루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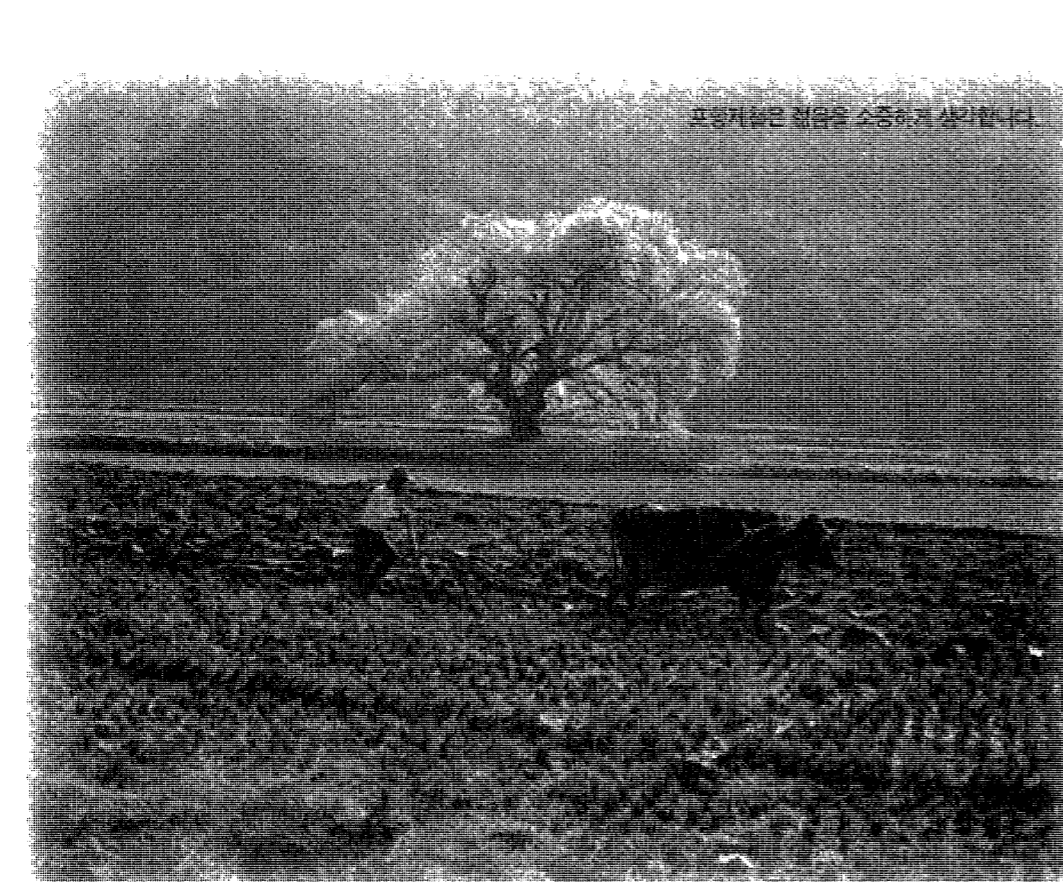


98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hoto98.or.kr)를 개설해 사이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문은 박양아씨의 '목록용 어저블'이란 제목의 포토 갤러리.



98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hoto98.or.kr)를 개설해 사이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문은 박양아씨의 '목록용 어저블'이란 제목의 포토 갤러리.

대학별곡 제 2계명



"가장 깊게 발흡을 간 농군에게 가장 실(實)한 열매가 돌아가리라!"

"입사시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천재성보다는 성실함과 근면성의 테스트다."

대기업에 계시는 어떤 간부의 말씀입니다. 깊게 공부하든, 넓게 공부하든 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과 근면성임을 새삼 강조한 말이 아닐까요.

전문적인 학식을 쌓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쌓든,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 꾸준한 보폭을 유지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나아가십시오. 무엇이든 일(一家)를 이루었던 이들의 한결같은 비결 역시 성실함과 근면성이었음을 되뇌이면서....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영상매체비평

- TV광고편  
아담의 '레모니아'  
사이버가수 아담의  
공허한 존재감



http://www.adamsoft.com/adam  
에 게재된 아담의 사진

시플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굳이 보들리야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플라크르의 세상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징후로도 알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데뷔 무대를 가지고 음반을 취입했다. 이 음반은 발매 2주만에 10만장이 나왔으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수는 한달 반만에 12만회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학하는가 하면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드디어 광고에도 등장했다.

아담이 출연한 광고는 레몬 음료 신제품 '레모니아'. 아담은 실제 여성모델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함께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하며, 지그시 눈감은 모델과 키스도 한다. 배경음악으로 아담의 곡 '세상엔 없는 사랑'이 흐른다.

사이버 스타의 존재에 대한 찬반론이나 일본 사이버 스타 다테 교코의 모방 의혹을 차치하고라도, 이 광고를 보면 여전히 아담의 존재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담에 대한 공허감은 우선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력은 외국에 비해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한다면 보다 정밀한 그래픽이 가능하

다. 제작자가 이를 모를 리 없으며, 그렇다면 이것은 자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이버 가수 아담의 캐릭터가 공허하다는 것이다. '성별 남, 나이 20세, 키 1백78cm, 몸무게 68kg, 혈액형 O형, 밝고 구김살 없는 성격과 잘생긴 용모'라는 아담의 프로필은 아담을 탄생시킨 소프트 업체에서 언론 보도용으로 내세운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동서양 미남의 장점만 추려 만들었다는 아담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콘텐츠나 콘택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배경, 맥락 없이 짜깁기한 캐릭터라는 것이다.

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회적 맥락, 환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상업적 목적 때문에 동서양 자료가 뒤섞인 극적 불명, 정체성 부재의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캐릭터 시장의 허점을 반영한다. 언론들이 아담부터 아담의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다.

스타란 원천적으로 가상적 이미지이며 대중문화 시스템이 만들어 내는 존재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자본의 시스템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맥락없는 실체라면, 인터랙티브가 어렵다. 우리 캐릭터가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동시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인격을 창조해

# 외국문화원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장·단점 아우르는 주체적 시각으로  
제국주의 편견 버리고 각국문화 향유해야

## 프랑스 문화원

1968년 설립돼 71년 종로구 적선동 중 경복궁 건너편으로 이전한 프랑스 문화원은 들머리와 동시에 이국적인 체취를 느끼게 된다. 1층은 프랑스식 카페테리아와 갤러리가 있다. 한편 한쪽에서는 향시 안내직원인 영화표를 판매하고 있다.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1백17석의 소규모인 '르누와르' 영화관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때문이다. 르누와르 영화관은 매주 대어섯개의 영화를 선정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후 2시와 4시에 하루 2편씩 상영하고 있다.

이외의 장서와 비디오테이프, CD, 인터넷 연결망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한편 프랑스 문화원에서는 드라마, 상층, 불어회화 클럽을 접할 수 있는데 클럽에 가입해 프랑스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734-9768

## 일본 문화원

1972년 설립돼 인구역 근처에 위치한 일본문화원은 인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수위와 감자용카메라로 인해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런 거부감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일본 문화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1층에 위치한 144석의 좌석과 1만9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개가식 도서관이다. 아무나 입장이 가능하고 사진 2매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으면 2권씩 2주간 대출도 가능하다. 일본어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원서도 있으며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 1년에 2학기씩 일본어 정규강좌도 진행하고 있으며 2층에는 작은 미술작품 전시실도 있으며 정기적으로 비디오 상영도 한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760-3011~3

## 영국 문화원

6개의 문화원중 가장 체계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영국문화원은 지하철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덕수궁 옆에 있다.

'윈스랩 샵', 3년전에 새롭게 단장한 영국문화원의 모토이다.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다.

인포메이션 서비스센터·유학상담실·영국관광청·영국대사관 상무과 자료실 등 다양한 자료가 구비돼 어학·유학·관광·문화·사업에 관련된 일을 다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영국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또한 1년에 2만원만 내면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를 대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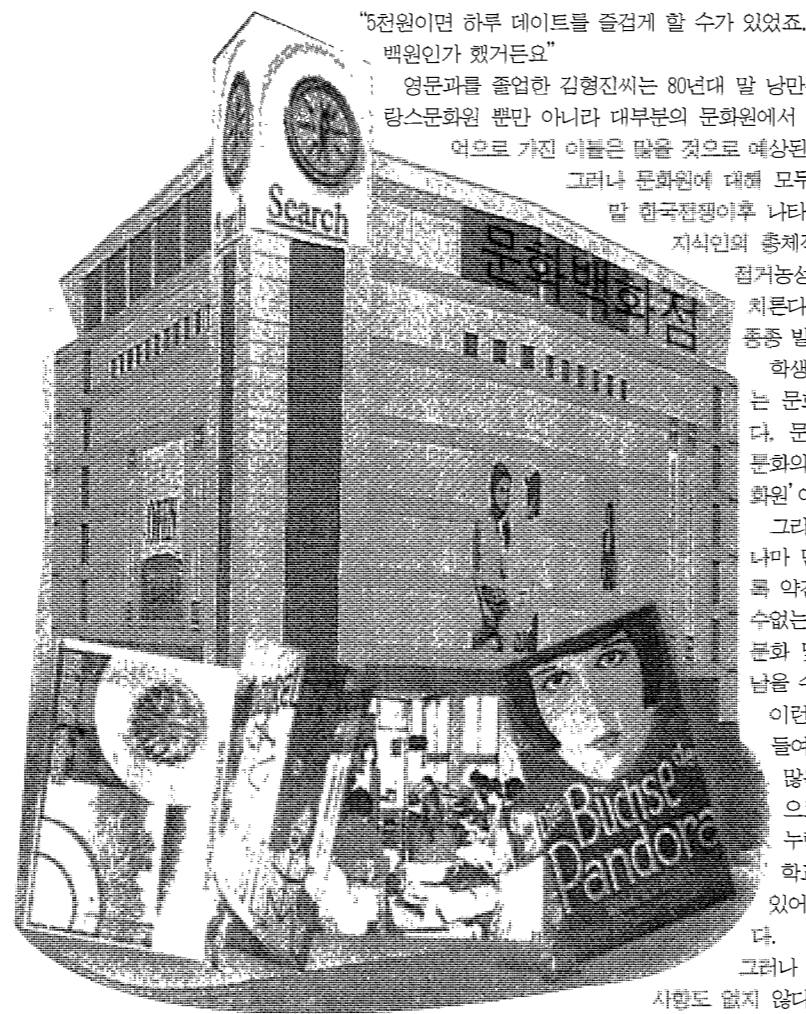
유학상담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지며 매주 금요일 3시반에는 세미나 실에서는 영국영화가 상영된다. 업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737-7157

## 독일 문화원

1968년 개관한 독일문화원은 남산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다. 교통편은 그리 수월한 편은 아니나 남대문이나 서울역에서 80번과 80-1번 버스를 타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된 어학강좌에 무려 1천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 높은 어학강좌는 초급과정 6단계, 중급과정 6단계로 나뉘어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 유학상담을 실시하며, 독일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테이프 등도 회원증만 발급받으면 무료로 관외대출 할 수 있다.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일요일 휴관)이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월요일에 휴관한다. 734-9831



5천원이면 하루 데이트를 즐겼을 수도 있었죠. 그때 프랑스 문화원에서 영화 한편 보는데 5백원인가 했거든요”

영문과를 졸업한 김영진씨는 80년대 말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로 문화원을 이야기한다. 프랑스문화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영화를 상영했으므로 아마도 이런 낭만을 추억으로 가진 이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화원에 대해 모두가 낭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80년대 말 한국전쟁이후 나타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에 대한 학생과 지식인의 총체적 반감이 표출됐다. 학생들에 의한 미문화원 점거농성이 있었고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화형식을 치르던가 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학생들에게 있어 문화원이란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문화의 침투를 조장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됐다. 문화원이 가지는 순기능(저렴한 어학교육이나 문화의 소개, 휴식공간의 제공)은 '어느 국가의 문화원'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에 의해 무시됐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정치·경제적으로 미비하나 민중주의가 이루어졌고, 외국 문화의 유입은 비록 약간의 조절은 가능하나 할지라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 인식된다. 또한 외국 문화 및 자본 유입에 감성적으로 대응해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시기에 시간을 투자해 문화원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우리는 이것 저것 자신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나 전시회를 관람하는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고 문화관에서 실시하는 내실있는 어학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유학에 있어 여러 자료를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적 효과를 누리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다. 이곳 저곳 문화원을 찾아다니며 접하는 각국의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갖거나 문화우열을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화원이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장·단점을 모두 숙지하며 주체적인 시각으로 각국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적 자세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위해 노력할 때만이 거시적 안목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최진 기자

## 인터뷰

### “독일과 더 가까워졌어요”



6단계 중 2단계를 수료중인 그를 만나 독일문화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문화원에 다니게 된 동기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이후 친

구들과 같이 독일어 회화중심으로 문법 및 작문을 배우고 있다.  
-수강신청 및 수강시간은.  
=신입수강생은 1년에 2회 모집하는데, 2학기(3월)와 4학기(9월) 시작 전에 모집한다. 수강시간은 오전 9시, 오후 1시, 4시, 7시로 하루에 4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업은 2시간반동안 이뤄지고, 일주일에 2번시행된다. 수강료는 한학기를 기준으로(2개월) 오후에 17만원, 저녁에 19만원이다.

-강의의 장점은.  
=초급단계 중 2단계까지 한국어 강사·교수급들이 지도하고, 그 이후에는

독일인이 직접 가르치는데, '이제껏 독일 어공부를 괜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가 체계적이고 쉽다.  
-수료과정은.  
=2개월이 한 학기로 돼 있으며 시험을 치러 유급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규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독일 유학시 어학연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독일문화원을 다닌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독일이 더욱더 가까워졌다.

김미경 기자

## 자양소식

### 학교안에서

#### 디디돌 98봄 정기영화제

영화공동체 디디돌에서는 일본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일본영화제'를 개최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라 이사오'의 대표작 6편을 상영하며, 티켓판매는 동아내 디디돌 부스의 '학생관' 4층 디디돌 동아리방에서 한다.

8일부터 10일까지. 1회 3시반, 2회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8일 아웃의 토로로, 반딧불의 요. 9일 철남대초오, 쉘 위 스타. 10일 리브레터, 스물로우 테일.

#### 미술학부전시회 '모색'

경주 캠퍼스 미술학부에서 새로운 '모색'을 한다. '모색'이란 본교 미술학부 서양화 전공팀의 전시회 제목으로 '새로운 것을 갈구·자신들만의 색깔을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색전'이란 이름으로 92년 창단 멤버가 생김에 제11회 전시회를 갖는 서양화 전공팀은 '인간'이라는 전체 테마로 학년별로 소주제를 나눠 전시할 예정이다.

내일(7일)부터 11일까지. 포항예술문화회관 1층에서.

### 학교 밖에서

#### 출상전야

극단 '무인' 창단공연. 마당극 '출상전야'는 관객들로 하여금 한 국민의 기본정서를 일깨워 잠시 답답한 현실을 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무인' 소극장에서.

####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신을 부르는 소리'라 일컬어지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판을 벌였다. 본교 경인교수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덕수씨의 음악인생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명성에 걸맞은 공연을 기대해도 좋을 듯. 15일 오후7시 안동대 문화회관에서.

## 메아리

### 반세기

▲“바람많은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받고 말쑥고은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떡하렘 감수광...” 산다도라 발리우는 제주, 바람은 섬이기 때문에 땅을 수박에 얹고, 돌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땅을 수박에 얹었다. 그런데 여자는 왜 많은 것일까. 바다로 나간 남자들이 폭풍에 목숨을 잃어서일까.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 한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동시에 한라산 봉우리에 불꽃이 울려져 '4·3 제주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독립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군정과 경찰들의 비인간적 탄압으로 생존권을 처참히 유린당한 제주 민중들은 항쟁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한국 통일 독립 만세' 등을 외치며 제2의 해방을 맞이한 후 해방기와 민족항쟁기를 소리높여 불렀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단독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투표함이 불태워지는 등 제주도에서의 5·10 단독선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지만 결국엔 이승만 정권이 탄생하고 만다. 제주에서의 단독선거 실패로 정통성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제주 항쟁의 불길을 근절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돌입함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의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모래구덩이를 뒤덮은 피의 흐름, 총성에 휘둘러 절규하는 어린이와 부인들의 소리... 비극은 한국전쟁의 종투와 함께 막을 내렸고, 이후 4·3사태는 '듣기' 시 되어 묻혀진다. ▲제주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설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민일보'와 '제주4·3연구소'는 10년째 4·3현장 취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3 소재 영화 '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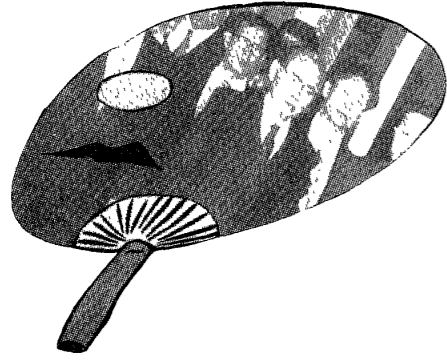
헌트' 상영과 관련, 인권운동기인 서준식씨가 구속되는 등 아직까지도 민족저항운동의 진실규명에 저항하려는 이들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일까? 반세기가 흘렀다. 그들의 가슴에 붉은 연재쯤에나 찾아기려나. 김윤환 취재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 등 기쁘게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북풍



△겨울이 지났는데도 북풍이 부나요? △북풍엔 땀뿡땀으로 내쳐(전 영국수상) 할 것 △현재 북풍에 화사가 묻어와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풍에서 부는 바람 : 북풍 △전방에서 노노라 수고했다 -94 북학생들 △한국경제위기로 사그러진 북풍! IMF만 없었다면 한국 최대의 이슈로 될 북풍! △87년 KAL기 폭파사건, 92년 이산실 간첩단 사건, 이현영씨 피살사건 전전 재수사!

△지겨운 바람 △경수로 공사로 북에간 친구에게! 건강식품(쌀, 개구리, 오소리, 들들) 많이 먹고 나와 건강이 쥘이다. -바라강 윤 △일기예보로 전부 믿을 수 없겠지요? △정치지 쏘! 쏘! 쏘! △할일 없고 등따시고 배우는 사람들 이 쥘 장난 좀 그만 쳐라.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전인수(?)' 가 아닌 갑우? △경제 한파에 북풍까지 추워서 죽겠다. △북풍을 '사풍'이라도 하나 '허풍' 일 수도 있다. △한국어 대사전=북풍:배민 선거때만 되면 부는 바람. △'북풍' 이 남기고 간 한마디 : 배민 가 린다고 다 끝난줄 알았어? △죽으려고 했던 걸 보니 죽을 짓을 했구 만. △북풍에서 오는 건 다 무시워요. 북풍도 그렇고, 또 6.25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북풍에 다 쓸어버려야 해 요. △진실을 우습게 보지마라. △그냥 죽으려면 죽지. 괜히 살아남아서 고생하냐 다시 한 번 할복해라! 그것도 아니면 죽을 용기로 진상을 밝혀라! △왜 색깔이 아닌 커터칼이었을까? △바람 중에 가장 나쁜 바람. △지속적 수사가 절실히 요망됨 △아마도 정부와 북한의 합작품이니까 빨 장고 파랗고. △북풍은 어느 부채에서 부나요? 혹은 선풍기?

오수기

유준상 (연영과 석사과정 3학기)

“저는 지금 ‘유준상’이 아니라 ‘대니’랍니다” 젊음을 가슴에 담은 연기자 될 터

어떤 이는 그가 '제2의 박신양'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중스타로서의 '박'이 보인다는 연영과 88학번 유준상씨. 그는 요즘 정신이 없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유준상'이 아닌 젊은 열기가 팔콘처럼 광광 뛰는 뮤지컬 '그리스'의 주인공 '대니'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준상씨를 만난 곳은 '그리스' 팀이 본 공연을 10여일 앞두고 막바지 공연 준비를 하던 호암아트홀의 연습실이였다. 실제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의 '뜨거움'을 느끼게한 연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연을 위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연습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수요일(3월 11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릎하고 허리가 많이 아

니예요. 이렇게 춤 연습 해도 되나구요? 물론 안돼요.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춤을 더 화려하게(?) 못 쳐서 안 타깝지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지라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새로워졌다고 덧붙인 그는 기자로 하여금 '그 사고가 정말 컸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고된 연습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심지어는 색스폰까지 멋들어서 소화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유준상씨의 학창시절 모습은 어땠을까? "학년 때부터 힘들 때마다 난산 뒷길을 올라 팔각정까지 뛰었어요. 혼자서 노닐던 백상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뒤돌아보곤 했죠" 요즘도 가끔 남상을 오르며 추억에 잠긴다는 그는 94년도 연극영화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만큼 학생회 일에도 열심이였다. 또한 '정든 모교를 떠나기 싫어서' 일반대학원 연극영화학 석사과정 3학기 수료중에 있는 유준상씨는 애교심으로 뽀뽀 뽀친 학우파이기도 하다. "주인공 대니는 바람둥이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인물이죠"라며 자평한 그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풀러 오세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뮤지컬이니까요. 후배님들은 대한연이랍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뮤지컬 그리스 19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예약문의 508-8555 김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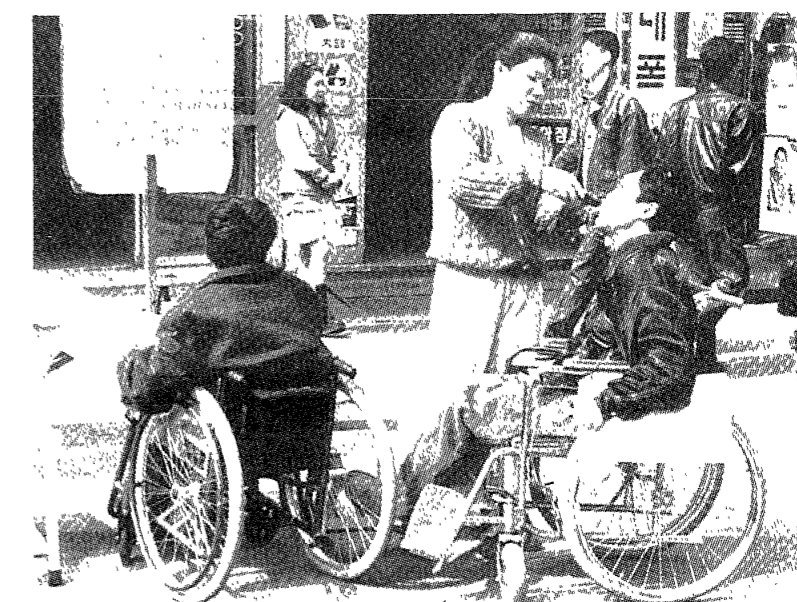
‘보여주기식 이제 그만’ 민주화 근간이뤄야

단군 이래 최대사면 5백52만명이라고 했던 사면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걸치려 식의 사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지만 IMF경제체제에 따른 사회적 여파와 북풍수사에 밀려 아예 감추고 만 것이 지금이다. 김영삼정부 때의 대표적인 비리였던 한보비리나 장학로 비사실장 뇌물추적사건, 기타의 성수대교붕괴사건등으로 구축된 정치인들도 소리소문없이 석방되었고 이에 여권은 숫자놀음만을 가지고 자랑스레 사면을 떠돌고 있다. 사면은 진행되었지만 서울역광장의 목요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민가협어머니들의 보라빛 손수건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의 양심수인 작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매여서 아직도 차가운 감옥안에서

불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의 한쪽에서조차 양심수에 대한 추가적방을 건의했지만 다른 사건들에 밀려 이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양심수가 누구인가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구절절이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양심수는 지난 암흑했던 역사의 한 피해자이며 참민주주의 실현의 기여자이다. 우리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참다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한다면 기초적인 과거의 청산문 제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다. 김영삼정부의 초기시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이든 부풀려서 터뜨리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경제와 국가까지 가져온 그 시절과의 차별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당장의 성과를 바라기보다 큰 물결을 천천히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의 북풍수사에서 보여지는 한계점을 빨리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국민이 믿어주었던 그 기대를 더 일찌감치 상실하지 않을까 싶다. 이산진(예술대 연극영화학과)

독자사진

그들만의 세상



이현민 상경대 경상학부

코끼리상 방화를 보고, 종교적 성숙 이뤄야

할 일이 없다가 보다, 코끼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할 것 같았다. 코끼리의 걸가죽은 네 다리와 코만 빼고 다 타버렸고, 몸통은 철골판 남아있었다. 차라리 흔적없이 녹아 내렸으면 코끼리가 우리에게 이따금씩 보이지도 않았으련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불을 질렀을까?' '누구의 소행일까?' 민취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적인 방화범의 소행일 수도 있으련만, 사이버 종교집단의 작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동안 내안에 쌓여온 고정관념 탓일까? 어느 학교의 재학생이 모교의 상징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겠는가 마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말이다. 미안하게도 이런 나의 고정관념은 나만의 잘못으로 형성된 편견이 아니라, 이 시대 이땅에 태어나 살아온 불자라면 그

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산물일 것이다. "어느종교는 이리이러하게 좋은 종교인데, 타종교는 이리이러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 종교가 그 종교보다 낫지 않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가끔들었다. 그런말을 하는 종교인이나 사이버 종교인이나 50보, 100보 고리 타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가끔 종교적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들을 보게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을리 만무하고, 그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게 된다. 자업자득 이러니 하기에 아직 우리의 수행이 부족해서인지, 그런일이 있게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굳어져 버리고, 피해의식이 쌓여가다가 나중에는 적대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이들은 사이비이고, 잘못된 소

수의 사람들이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분노를 식일 수 없다. 그런 자들로 인해 종교 로써 서로간의 끈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 사랑과 자비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은 소수로 인해 왜곡되어지는 것이다. 소수의 비행자들로 인해 종교는 그렇게 우리곁을 떠나가고 있다. 누구는 불지르고, 누구는 혼신지우며 그 뒷담화를 저야하고! 이미 없지리진 불, 어찌하겠는가? 마음이 있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한번 더하고(코끼리 다시만들기), 또다시 코끼리가 타죽거나 맞아죽는 일이 없도록 잠겨진 대비책을 세울수 밖에. 그리고 코끼리가 화우들의 무관심속에 굶어죽는 일이 없도록(애정결집) 잘 보살펴야겠다. 김형준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다행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Menu items (화, 수, 목, 금, 토). Lists various food items and their prices.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Menu items (화, 수, 목, 금). Lists various food items and their prices.



목격글

축하합니다

△이보경 학우 생일 축하! 로즈양이 △4월 10일 문성주 아저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93황영준, 임명현 △4월 4일 성진이 오빠의 생일을 무지하게 축하합니다. -한 △4월 9일 공대의 자칭 최자우 미스홍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형 배용준 △생지대 문예단 '춤추는 보리' 창단을 축하합니다. -생지대 파이팅 ANEO-AD 4월 3일 공현식 선배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일동 △4월 6일 동대에서 만난 친구 맛있는, 봉규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형신 △경영학과 동현이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못해 미안다. -불사대 △차현이형 안건기사 1급 합격을 축하해요. -LAE 22기 후배들 △지연아 님이 생일 축하해 △총학생회 건설을 축하합니다. -말 △4월 7일 헤란이 생일 축하한다. 좋은 추억되기를 -오빠가. △재희언니 생일 축하해요 -후배부락 △4월 4일 전환이의 생일 무지 축하. 후

동약광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원이형! 수고많이 했어요. -나, 명 △경계·경동 연합 M·T 참여하신 많은 98 새내기 수고 -이간 경계 4학년 일동 △아중 출범식 준비한 문예단, 자분단 새내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 일동 △30대 애국경상 자주적 학생회 건설에 수고하신 일꾼여러분 율한해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부 △30대 자주적 총학생회 건설에 힘쓰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 △서도회가 전시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I △사학과 답사에 참여해 준 어여쁜 인문 학부 후배들 사랑해요. -장 열심히 합니다 △종원이 미국 잘 다녀와. △재수오빠 면허 꼭! -뽀뽀 일동 △지니야 사랑받는 이별이 되길 바란다. 파이팅 -이쁜이 △산림자원학과 4월 7일 야구대회 출전. 파이팅! -다수 그리고... △의료은 대지의 깃발 4·3항쟁을 기리

인방글

축하합니다

△4월 5일 우리 오빠야 생. 많이 많이 축하. -동생 이영이(전산정보2) △보건소 간호선생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백년회화하세요. -저 일죠? △지연아 생일 축하해. 내 생일이 국경일이 되는 날까지. △밀당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력무력 자라나길 기원. -老 △4월 9일 한국어문화부 경영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송기 △국사학과 동아리 토함. 개강과외와 16대 회장단 출범을 축하합니다. -미스 고 △강민이, 정연이, 세정이, 진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예과 대표가 △화정이! 4월 4일 1주년 자축하자. -동 이가

열심히 합니다

△멋쟁이(?) 광고 선배 "살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파이팅! △한국어문화부 회원아! 분발해라! △생화학과 MT 잘 다녀오고 학회장님 목보이소. -MOOK △생아! 너무 섬세하게 생각하지 말구. 우리 열심히 다시 한 번 도전해 보자! -국 고시사 낙방자 △지혜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도로 연수중이래요. 꼭 합격하길 바란다. -경이가 △석주 오빠 birthday를 왕 축하! △점프 오빠 결혼을 축하합니다. -오빠를 아끼는 후배가 △경영의 포플 진호군이 얼마전 보경양과의 1주년을 축하 안했다고 빼졌어요! -북극곰 △전산정보 97 황준태씨의 동문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경상 97

수고하셨습니다

△찬기야! 학술답사 다녀 오느라 수고가 많았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웅 이가 △부디 건강유념하시고 힘들면 이런 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죠? 아싸! 관경 -새내기 그리고... △김기찬(안준경 97)씨! 체력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ID : 꽃나랑 △박지민과 차민수의 이별을 축하해 주세요. -지민 △우진아!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구나. 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했으면. -YOUR SKY △소중함 친구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슬픈일입니다. -경상D 77 △답배 끊기로 한 내 친구 동호야. 꼭 잘 되기를 바래. -98친구 YH가 △정민아! 혼자 생활하기 힘들지? 이 언니가 도와 줄테니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정민 △정연아! 끝까지 잘돼서 국수 얻어 먹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한다. -영원한 심골 △경상학부 고적답사 재미 있었어요 -경상9801 △도시리처럼 학교 다닙시다. -가교과의 이쁜조 △미술학과가 전시회 합니다. 포항 문화예술회관(7~11일) 많이 오세요 -적품하나 △화정이 열심히하고 기운내. -너를 사랑하는 지니가